

네일아트 Nail Art



기분 전환을 위해 매니큐어를 바른다는 여성들이 많다. 얼굴이나 헤어에 비하면 멋 내기엔 작은 공간인 손톱. 하지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색다른 연출을 할 수 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자 네일숍들은 네일아트를 받기 위한 여성들로 북적이고 있다. 화사한 컬러를 손톱에 입히는 것만으로 센스있는 여성이 될 수 있는 네일아트에 도전해 보자.

손톱 끝에서 '꽃바람' 분다



■네일아트란

네일아트라고 하면 흔히 손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네일아트는 손톱뿐만 아니라 손 전체의 관리를 통해 손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네일숍을 방문하면 손 마사지와 부러진 손톱 케어, 큐티를(각질) 제거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손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네일 아트지만 손톱에 자극을 주는 매니큐어와 아세톤, 인조 손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손톱이 상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수분이 부족해진 손톱은 쪼개지거나 부러지기 쉬우므로 보습제나 손톱 강화제를 발리주는 것이 좋다.

염증이 생기고 손톱의 모양이나 색깔이 심하게 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보기 싫은 부분을 감춘다고 매니큐어를 더 진하게 바르거나 잡식을 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켜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일아트 종류 및 가격

네일케어는 적은 비용으로 공주 같은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네일아트는 손톱이 자라는 시기인 2주마다 유지, 보수해주는 것이 좋다.

네일숍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큐티를 관리가 포함된 일반케어(8천 원~1만 원), 프렌치 컬러링(발 부분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것·1만 원), 그라데이션(1만~1만2천 원) 등으로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명 '아크릴 아트'로 불리는 화려한 네일아트의 경우 손가락 하나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그라데이션은 화장할 때 쓰는 스페셜에 매니큐어를 묻혀 손톱에 가볍게 두들기며 색을 내는 것. 손톱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면서 신비한 느낌을 준다.

이브네일 전지선(34·광주시 남구 봉선동)원장은 "큐티를 정리, 컬러링, 손 마사지, 파라핀 팩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케어를 찾는 손님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손톱에 색칠을 하고 간단하게 스톤을 장식하거나 간단한 무늬를 넣는 것만으로도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네일아트

집에서 네일아트를 할 경우 매니큐어 전에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색컬러의 페인트 성분이 손톱에착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일아트 후 마무리로 톱 코트를 발라주면 오래 유지되고 윤이 나는 일명 '샤인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

올해 유행 컬러는 화사하고 깨끗한 핑크와 화이트가 주류를 이룰 전망. 핑크와 화이트를 이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네일아트에 도전해 보자.

①베이스코트를 바르고 핑크컬러의 매니큐어를 전체적으로 칠한다.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 이 좋다.

②화이트 컬러의 매니큐어를 손톱의 절반에만 칠한다.

③반죽 췄한 부분의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아트펜(얇은 붓이 달린 매니큐어)을 이용해 가느다란 선을 그린다.

④손톱용 글루(접착제)나 톱 코트를 사용해 큐빅(인조보석) 등으로 장식한다.

/작성경기자 ksj@kwangju.co.kr



▶작성경기자 ksj@kwangju.co.kr



▶작성경기자 ksj@kwangju.co.kr



▶작성경기자 ksj@kwangju.co.kr

▶작성경기자 ksj@kwangju.co.kr